지역 소식통

부안군, 어린이 흡연 예방 교육 실시

부안군에서는 4월 4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24개소 아동 448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게 구연동화와 미술등을 활용한 교육으로 진행되며, 인지능력이 형성되는 유아를 대상으로 담배연기로 부터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 할 수 있는 능력향상과 건강위험인식을 높여 담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가정에 전달하여 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통해 흡연하는 부모가 금연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흡연자의 1차 흡연 이외에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를 직접 들이마시는 것을 2차 흡연, 흡연자의 옷이나 머리카락, 흡연 장소의 벽이나 가구 등에 남는 화학적 잔류물에 노출이 되는 것을 3차 흡연이라 한다. 국제암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접흡연으로도 암에 걸릴 확률이 약 30%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하서면, 개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 벌려

부안군 하서면 사무소(하서면장 김영자)는 지난 30일 하서초 및 하서중에서 자율방범대와 함께 개학기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은 개학기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정문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홍보 현수막 게첨 및 리플렛 배부 등을 통해 개선활동을 진행하였다.

개학기를 맞아 실시한 캠페인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학기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기간'이 운영중이다.

김영자 하서면장은 "봄 개학기를 맞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하서면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성장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방세법 개정 등 행보 이어가

심덕섭 고창군수, 행안부 차관 면담… 국가예산 반영도 건의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역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 등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서울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을 면담하고 지방세법 개정안(지역자원시설세)의 연내 통과에 대해 주무부처의 공감과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윤준병 국회의원은 고창군이 원전 인근지역임에도 방사능방재대책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또 고창농악전수관 등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현안사업들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최근 지진, 태풍 등 빈번하게 자연재해가 발생해 원전 소재지는 물론 주변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높다"며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최선을 다해 군민의 뜻 최우선"

부안군의회, 읍 · 면 현황 청취 · 조례안 등 16개 안건 처리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지난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읍면 현황청취를 비롯하여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건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이한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개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도로망 기본계획에 부안 IC에서 새만금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박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과 이강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굴종적 일제 강제 동원 해법 폐기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하기로 했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읍면 현황 청취를 통해 지역별 현안과 민원사항 등 자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보며 읍면 현황 청취로 끝나지 않고, 읍면마다 특색을 살린 잘사는 농촌 부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제9대 부안군의회 의원들도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를 만드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사랑인가, 봄' … 제1회 고창 벚꽃 축제 성료

석정온천지구 일원서 31일부터 사흘간 펼쳐

고창군에서 지난 31일부터 사흘간 '사랑인가, 봄' 벚꽃 축제가 시작했다. 석정온천지구(고창읍 석정리 727번지) 일원에는 아름드리 벚나무가 솜사탕 같은 꽃망울을 펑펑 터뜨려 온통 연분홍 세상으로 물들었다.

이번 축제는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축제인 만큼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됐다.

행사 첫날인 31일에는 봄처럼 화사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어린이콘서트를 시작으로 이색복장 벚꽃길 걷기와 미디어북 퍼포먼스, 자전거 탄 풍경 공연 등 전야제 공연, 군민화합한마당이 진행됐다.

이튿날(1일)에는 군민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군민화합페스티벌과 유명가수(10cm, 신유, 김태연 등)와 함께하는 개막식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마지막날인 2일 미래 꿈나무들인 청소년페스티벌에 이어 벚꽃 음악회를 끝으로 축제를 마무리 지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벚꽃축제가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관광객들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색다른 콘텐츠를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일상 속에 스며드는 문화, 예술활동 제공을 위해 다양한 문화정책으로 군민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읍시가 지역 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함과 동시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018.4.1.~2023.3.31.)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 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 4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는 하반기(10~11월) 사업 시행 시 신청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 '화합 · 소통의 장' 마련

정읍시 주민자치회가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지역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수시 탐방에 나섰다.

여수시 일원 우수사례 견학과 현장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 개발에 필요한 노하우를 배우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 리더로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자긍심과 사명감 향상은 물론, 존중과 배려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감과 소통 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여수시 일원 워크숍은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지역 내 11개 면·동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첫날 '조직 소통과 변화관리 리더십'을 주제로 한 소통 커뮤니케이션 교육과 우수지역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주민의 마음을 얻는 소통 및 우수사례'를 주제로 한 강의를 들었다.

둘째 날에는 여수·순천 등 지역문화 탐방을 통해 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석자 상호 간 우의와 화합을 다지며 주민자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다.

시와 주민자치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습득한 우수사례를 검토·분석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워크숍 운영 시 개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읍시는 23개 읍면동 중 9개의 주민자치회와 2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약 280여 명의 주민자치 위원들이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을 위한 자치 활동과 자연정화 운동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도서관 주간 · 세계 책의 날 이벤트 운영

정읍시는 '제59회 도서관 주간'과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맞아 재미와 교육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서관 주간'은 1964년부터 시작돼 매년 전국의 도서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는 기간을 말한다.

시는 이 기간 '경계 없이 비추는 문화의 빛'이라는 주제로 작가 강연, 공연, 체험, 전시, 이벤트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중앙도서관에서는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를 주제로 정승익 작가의 강연이 열린다. 또 '코리안 아츠 브라스 앙상블' 공연팀이 관객과 소통하는 연주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수많은 시를 쓴 천재 시인 박정만의 시화전이 열린다.

/정읍=김대환 기자